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 촉구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동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1998년 12월 23일

제안자 : 총무건설위원회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종합토지세와 월드컵 주경기장, 상암택지개발사업등이 완료되면 유동인구는 물론 상주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세는 더욱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각 자치구간 세수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추진중인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을 맞교환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세인 종토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야 함.
- 시세인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된다고 하여 담배소비를 권장하여 청소년의 탈선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일부자치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담배소비세가 구세가 된다고 하여 흡연을 권장하는 자치구는 없을 것임.
-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많고,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약간의 과표가 인상되어도 납세자의 반발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곤란함.

첨 부 : 성명서 1부

성 명 서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에서 '98.12.18.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 맞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40만 마포구민과 마포구의회 전 의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한다.

1. '95. 7. 1. 지방자치 기반이 구축되기도 전에 출발한 민선지방자치는 잘못된 재정제도로 인하여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어 지역간 위화감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 편재도가 심한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지역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조속히 교환하여야 한다.

이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해소와 대다수 자치구들의 자체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일부 극소수 자치구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구에서는 세목교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2.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주장하는 세목교환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통제를 강화하고자 한다"하는 주장은 오해로 세원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부 자치구는 조정교부금 불교부 단체인 반면, 다수 자치구는 자체재원이 증가하므로 재정적 통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종합토지세는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신장률이 높고 심지어 2000년도 부터는 종합토지세가 담배소비세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과거와 같은 토지투기 현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전제를 두고 주장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는 납세자가 많고,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약간의 과표가 인상되어도 납세자의 반발은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심지어 "담배소비세가 자치구세로 되면 자치구청장이 담배판매를 장려해야 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양 세목은 교환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주장도 어느 구청장이 담배소비세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 주민들에게 흡연을 권장하겠는가?

그동안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강북지역의 재원으로 강남지역에만 중점 투자하여 개발이익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이제와서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세목교환에 반대한다는 것은 극심한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3. 따라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중인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1998. 12.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